

# 朝鮮初葉의 鐘形과 銘文

洪 恩 俊

一

鐘이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使用되었던 時代는 三國時代로 佛敎가 輸入 傳播되면서 佛俱로서 없지 못할 器俱이었는데 常識의인 事實일 것이다. 現存한 梵鐘으로 가장 年代가 오래된 梵鐘으로는 上院寺鐘과 奉德寺 鐘을 손꼽을 수 있는데 鐘形이나 鐘表에 雕刻한 紋樣과 아름다운 音響 等 三者가 모두 俱備된 最古最大 最美의 梵鐘이라 아니할 수 없다. 統一新羅에서 高麗로 時代가 바뀌면서는 梵鐘이 倭小해지고 鐘形이 多少 變遷한 느낌이 있으며 鐘表에 나타난 彫刻에는 佛像이나 또는 梵字가 鐘肩에 配置陽刻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新羅時代 鐘形을 작은 梵鐘形 그대로 保有한 面도 있다고 하겠다. A·D 一三四六年 高麗 忠穆王二年丙戌에 製作된 開城 演福寺鐘(鐘高二、三〇m 鐘口經一、八五m)은 形態面에 있어서 鐘肩이 鐘面에서 鐘頂面에 이르는 曲線이 거의 90度에 가깝도록 구부러져 鐘表面에는 鐘中位에 三條平行 凸帶를 中心으로 하고 細線의 隆帶二條가 그 上下로 둘러있고 이 中央 七條平行 帶를 다시 上下로 하여서 四形을 線紋으로 四面에 配置하였으며 鐘口는 波狀形으로 菱形을 가지고 있어서 特異한 느낌을 준다고 하겠다.

이 鐘이 만들어진지는 元의 順帝가 高麗國에 姜金剛 辛裔를 派遣하여 金剛山에서 鑄鐘하고 歸路에 오르기 前에 忠穆王이 元의 順帝를 받드는 意思도 있거니와 演福寺에 本來있던 梵鐘이 破鐘으로 오랫동안 쓰지 못하던 것을 此際에 更鑄한다는 現演福寺 鐘銘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演福寺鐘銘에서 末尾에 記錄되어 있는 名單을 적어 본다.

奉訓大夫中瑞司典簿匡靖大夫政堂文學進賢  
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臣李穀撰

高麗國王王昕

德寧公主亦憐眞班

資善大夫資正院使姜金剛

將仕郎左藏庫副使辛裔

征東行中青省左右司□□□

郎中洪鐸 郎中李壽山

員外郎石抹完澤 員外郎康允忠

都事申仁適 都事岳友章

□□理問所官□□相

副官河有源

都鎮撫司□□

副都鎮撫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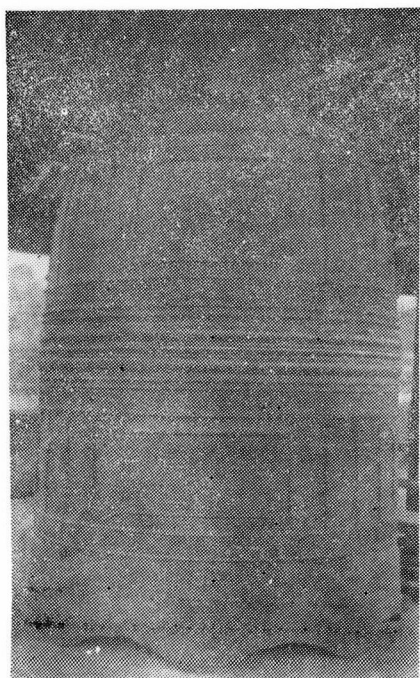


圖 1. 演福寺鐘

都僉議使司□□

政丞盧頤

贊成事金永晔 贊成事康允成 贊成事安軸

贊成事李君俊

□理鄭乙輔

□司事崔天□

(此間數行欠)

□□□金允莊

副使辛佑□

知申事鄭延□

左代言鄭思□

右副代言金用謙

左副代言李筵吉

藝文檢閱成師達書

◎同願

吉昌府院君權準 福昌府院君金永煦 延安府

院君印承旦 咸陽府院君朴冲佑佐

大府監丞李福壽

金海府院君李奇賢

萬戶保安君林淑

前理問尹繼宗

前贊成事尹桓

直城君盧英瑞

興海君裴全

大漢護洪繼 文大龍

保安宅主朴氏

榮州郡夫人禹氏

檢校版圖判書達摩室利、都(邢)憐不花 賽因不花

護軍黃順 朴允柱 姜碩

散員盧承幹

護軍周永保

○征東省委員

左右司員外郎康允忠

椽史張君信

○提調官

萬戶權謙

判密直事李能

同知密直事印承叙

密直副使金光載

鷹揚軍上護軍□□

○監造官

上護軍林萬年 襄天慶

護軍裴守 全成 李賢

內府副令河楫

司僕副正李承牧

中郎將金用珎 朴世珎

平壤判官崔祿壽

有備倉使鄭仁老

郎將鄭珣 辛承茂

祇候朴仁漸

都評議錄事朴允瑜 鞠儒

中軍錄事金季彥 許元義

○造成都監

錄事高冲翊

○令史

俞得良 李暉景 朴洪 徐義 盧千善 金仁□ 崔良儉 朴千節 崔天啓 李元柱

江浙行中書省富(實)陽縣赤松

○匠手

提領何德貴 提領河邦達 提領趙明達等一千人 上高把頭牛德張玉(以上八

字未詳)

○使令

都□尉 金平(正) 印之、俞景□□正□□白□咸松尹 元世 朴加□□孟龍  
金和尚

○譯語

陶得明

以上

朝鮮時代로 접어들면 어디서 그 模形을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鑄을  
거꾸로 한 模樣을 갖는다. 演福寺鐘肩이 넓다면 朝鮮初葉의 鐘은 普信  
閣鐘이나 興天寺鐘 乃至 奉先寺鐘 洛山寺鐘의 鐘肩은 弧를 그린 曲線이  
다. 또한 鐘表를 考察하면 鐘身 上部에 一凸帶、中部에 三凸帶、下部에  
平行 二凸帶를 둘러 配置하여 모두 六平行凸帶를 가진 것이 공통점이다  
이들 凸帶와 凸帶間地에는 無紋의(普信閣鐘) 것이 있고 或은 紋樣이 있  
는 興天寺鐘、奉先寺鐘(上段에 九乳廓 佛像、下段에 凸帶間의 波紋)이  
있고 또는 洛山寺鐘에는 九乳廓이 없는 것 등 多樣하다. 대체로 보아서  
朝鮮初葉의 鐘形은 演福寺鐘形을 바탕으로 한 듯 鐘表의 上中下 凸帶에  
回形을 除去하고 鐘口의 菱形을 排除한 橫帶만으로 鑄成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勿論 多少의 細部紋樣이 添加한 것도 있다. 鐘體에  
비해서 紋樣이 貧弱하게 되어 鐘身의 美的感覺을 소홀히 하는 反面 鐘  
을 크게 鑄造하여 그 音響만을 雄大하게 하는데 그 主眼點이 있지 않았  
던가 意料되는 것이다.

이것 以外에 鐘表面에 銘文이 陽刻된 것도 注意를 끈다고 하겠다. 아  
래에 雲從街鐘(亡失)을 爲始하여 世祖二年의 光化門鐘(亡失) 世祖十三  
年의 普信閣鐘. 乃至 睿宗元年의 洛山寺 奉先寺 表訓寺 鐘等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A) 雲從街鐘

朝鮮王朝가 創業하고 나서 國都를 開城에서 漢陽에 定都한 후에 都城  
을 新築하고 城內居民이나 城外百姓으로 하여금 四大城門을 出入하는  
時刻 즉 動作과 休息時刻를 알리는 鐘이 鑄造되고 이에 鐘樓가 建築된  
年代를 朝鮮王朝實錄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一、太祖六年丁丑正月 辛卯上幸鐘樓觀新鑄鐘。
- 二、太祖七年戊寅二月 戊子命領三司事權仲和 監鑄鐘於廣州以白金五十兩並鑄乃成。
- 三、太祖七年戊寅三月 丙寅廣州新鑄鐘成設祭於白岳木寬、
- 四、太祖七年戊寅四月 庚辰幸廣州觀新鑄鐘、賜提調權仲和鞍馬、以左右道軍一千三百名輸至市街樓下。初命鑄鐘尋構樓于市街以權仲和李恬爲提調官恬剛愎自用。不聽人言。三鑄未成。上專爲仲和。仲和博採衆議。又騁巧思。一舉鑄成。上喜有是賞。
- 五、太宗十三年癸巳四月 鐘樓成復懸舊鐘
- 六、太宗十四年甲午六月 定罷漏撞鐘之法。先是罷漏撞鐘在五更初點。至是改以三點、李膺啓闕門晨昏鐘鼓一時撞擊與中國不同。宜於擊鼓畢後撞鐘撞鐘之數。從六十四卦大多。請從二十八宿之數、且中國無昏鐘請宜停罷從之
- 七、世宗十九年丁巳六月 議政府啓國初置鐘樓於四達之衢。令義禁府掌。漏人量審時刻。而昏曉撞擊。以節萬家動靜之機。然其漏器失度。亦因掌人錯誤。公私出入之際、失於早暮。頗多甚爲未便。乞構閣於兵曹牆門月差所行廊壽進坊洞口屏門皆置金鼓使之。承聽禁漏。自擊聲以此傳擊。至義禁府永爲恒式。從之。
- 八、鐘樓在都城中央、構爲二層、樓上懸鐘。以警晨昏。雲鐘街即瑞麟。

壽進坊中央。

九、世祖四年戊寅二月新鑄大鐘成。懸于鐘樓下

以上에서 太祖六年에 王이 鐘樓에 가서 新鑄鐘을 보았다 하였고 翌年 二月에 廣州에서 權仲和 監鑄로 新鑄鐘이 되어 三月에는 白岳과 木寬兩 山에 祭典을 올렸었다 하였음은 前年에 鑄鐘한 것이 破損 되었거나 다른 곳의 鐘을 鑄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여기에 從事한 權仲和 에게는 廣州에 가서 王이 施賔으로 鞍馬를 贈하였다 本是 李恬과 權仲和 二人을 提調官으로 하였을 적에 李恬이 自己意思로만 鑄鐘하다가 三次 나 失敗하자 權仲和에게 專擔시키니 衆議를 널리 求하는 데서 一舉에 大鐘이 成就되었다는 事緣이다. 따라서 大鐘運搬에 左右道 軍人 一千三百名을 動員하여 市街의 鐘樓下까지 옮겼고 同時에 鐘樓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음에 太祖十三年에는 鐘樓가 消失되었던 것인지 鐘樓를 다시 建築한 후 舊鐘을 달았다고 하였다. 太宗十四年六月에는 撞鐘法을 李膺의 啓에 의하여 六十四點을 고쳐서 二十八宿數로 罷漏時刻을 定하였다. 世宗十九年六月에는 議政府啓로 漏器의 失度로 하여서 早暮의 撞鐘時刻이 틀린다는 것에서 壽進坊洞口에 金鼓를 두어서 禁漏를 듣고 따라서 치게 하되 義禁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恒式을 하자는 것으로 王이 좃았다 한다. 雲從街 鐘樓자리는 都城中央 瑞麟坊 壽進坊 中央인데 二層鐘樓에 樓上에 懸鐘하였다고 한다.

한편 金石總覽下 附一〇三 雲從街鐘 權近撰의 鐘銘을 보면 朝鮮太祖 加建大功定大業의 鑄鐘이 朝鮮太祖四年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鐘은 朝鮮王朝에서는 가장 먼저 鑄鐘된 것이라 할 것이며 太祖六年에 「上幸鐘樓觀新鑄鐘」의 記事는 上記 太祖四年 鑄鐘이후의 다른 鐘인 것으로 史料되는 것이다.

다음에 雲從街 鐘銘을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생각컨대 朝鮮國이 天命을 받는지 三年에 定都를 漢水北에 하고 다음 해에 비로소 宮闕을 經營하며 그해의 여름에는 攸司에게 命하여 大鐘을 만들고 鐘閣을 大市街에 建立하고서 이 鐘을 단 것은 新功의 內容을 새

거 鴻業을 後世에 傳하기 위한 것이다. 옛부터 國家를 이룬자가 大功을 세우고 大業을 定하면 반드시 鐘鼎에 銘을 하였으므로 그 아름다운 소리는 後人の 耳目을 聳動하게 하며 또는 都邑을 通하여 晨昏에 처서 都下百姓의 起動 또는 休息의 限界를 嚴하게 함이니 鐘의 用途는 큰 것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殿下(太祖)는 潛邸에 있을 때부터 德望이 날로 높아져 天命과 人心이 두터운은 群賢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同調하여 그 智力을 본받아 一朝에 高麗氏를 代身하여 잡게 되니 經論을 세우고 紀綱을 마로잡아 子孫萬代에 太平을 자리 잡으며 功은 세우고 業은 定함이다. 마땅히 이것을 새겨서 後來에 밝혀 보임이다. 周易에 말하기를 天地의 大德은 생이며 聖人の 大寶는 位라 하였으니 어떻게 하여야 位를 지킬 것인가 仁을 말하기를 聖人은 國民의 마음으로서 마음은 갖고 이를 擴充하는 데서 能히 그 位를 保有하니 이는 天과 人이 비록 다르나 그 마음은 同一한 것이다. 이제 우리 殿下가 即位하는 날 피를 보지 아니 하였고 中外가 晏然하여 百姓들이 虐政에 시달리다가 모두 生의 樂을 알게 되니 이것은 好生의 德이 있음이며 비록 大舜 보다는 더 낫지 못하지만 可히 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原文略).

이 鐘銘은 太祖七年戊寅四月四日(庚辰)에 當時 藝文館 春秋館學士 權近에게 王命으로 奉撰한 것으로 王朝實錄에서 볼 수 있으며 金石總覽에 서도 볼 수 있다.

雲鐘街鑄鐘銘并序

權近撰

惟朝鮮受命之三年。定都于漢水之陽。越明年始營宮寢。其夏命攸司鑄大鐘。既成建閣于大市街以懸之。所以勤成新功垂鴻休也。自昔有國家者。建大功定大業則必銘于鐘鼎。故其休聲鏗鉦動後人之耳目。且於通都大邑之中。晨昏撞擊。以嚴人民作息之限。鐘之用大矣。恭惟我殿下自在潛邸。德望日隆。人心之歸。自有不能已者。群賢礪翼成效其智力。而一朝代高麗氏。而有之宵旰軫慮。立經陳紀。以基子孫萬世之太平。功可謂建。而業可謂定矣。是宜銘之。昭示後來。且易曰天地之大德曰生。聖人之大寶曰位。何以守位。曰仁。言聖人以天地生物之心爲心而擴充之。故能保有其位。是天人

雖殊其心則一也今我殿下即位之日兵不血刃。中外晏然民之苦於虐政者皆知有生之樂。是則好生之德(雖大舜)蔑以加矣。是尤不可不銘也銘曰

於穆我王受命溥將聿來新邑于漢之陽。昔在松都國步斯廢我王之除虐以德。民不見兵、會朝清明、賢智效力、躋于大平、遠近如歸、既庶既繁、乃鑄厥鐘、乃聲晨昏、我功我烈、是勳是鐫、鎮于新都、於千萬年、鐘銘之文面을 要略하면 高麗王氏를 代理해서 朝鮮李太祖가 創業한 事由를 古制에 의한 鐘鼎에 그 大功과 大業을 記錄하여 後世까지 聖業을 傳達하자는 의도에서 大都 中央에 鐘閣을 짓고 달았던 것을 알게 된다. 오늘날에 이 鐘의 形態라거나 크기를 알 수 없었는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B) 光化門鐘

다음 第七代 世祖때는 海東金石苑附錄卷下에 「朝鮮國新鑄鐘銘并序」(朝鮮金石總覽下附錄一〇七 光化門鐘銘)의 內容을 보면 同王二年三月(天順元年 A·D 一四五七年)에 王命을 받들고 (第一) 申叔舟撰 姜希顔書로 되었고 (第二) 本文이 있는데 이 本文은 朝鮮金石總覽의 光化門鐘銘과 同一한 文章이다. 다만 字句에 있어서 多少 異同이 있을 뿐이며 (第三) 本文 末尾에는 鑄鐘에 同願 參與하였던 王族이 一五人 其他 官員 二〇三名이 있고 鑄鐘監督에는 監鑄에 都是 調 提調 副是 調 其他 技術者에 圖書院別生 監後書員 鑄成匠 水鐵匠 雕刻匠 入絲匠 爐治匠 木手等多數人員의 名單이 記錄되어 있다. 이와 같이 鐘銘末尾에 同願參與者와 技術者 名單이 있는 鐘銘에는 溟福寺鐘銘末尾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니 時代的으로 考察할 적에 演福寺鐘이 A·D 一三四六年 鑄造되고 光化門鐘이 A·D 一四五七년에 鑄鐘되어서 그 時差가 一二年이라면 光化門鐘銘末尾에 同願 參與者와 技術者 名單이 記錄된 것은 演福寺鐘에서 그 例記를 찾은 것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言及한 바 있는 光化門鐘銘에 對해서 그 鐘銘의 內容을 살펴 보면 다음 (第一) (第二) (第三)으로 區分하여 볼 수 있다.

(第一)의 職名을 보면 아래와 같다.

輸忠協策 靖難 同德 佐翼 功臣 崇政 大夫 議政府  
右贊成 寶文閣 大提學 知春秋館 事 兼 判兵曹 事  
成均 大司成 高靈 君 臣 申叔舟 奉教 撰  
通政 大夫 僉知 敦寧 府 事 臣 姜希顔 奉教 書

(第二) 넓은 心 우리 主上 殿下 께서 昇平한 날이 오래되니 軍政을 不可不 嚴히 할 것을 생각하고 攸司에게 命하여 大鐘을 鑄造하여서 思政殿 앞 行랑에 걸고 官禁軍을 號令하여 整齊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太祖 康獻 大王이 創業 開國하였고 太宗 恭定 大王이 前烈을 빛나게 하였으며 世宗 莊憲 大王에 이르러서는 守成에 힘쓰되 文으로 治國하시니 四境이 按堵하여 백성들이 兵革을 못 본지가 三十餘年이며 文宗은 在位가 짧고 嗣王이 어려서 權勢를 弄奸하는 사람이 나라를 마음대로 혼들고 朝政을 濁亂케 하여 宗社가 危殆롭게 되니 우리 殿下(世祖)는 奮然히 英傑스런 武士로 忠義를 힘써 大難을 바로잡아 드디어 大業을 安定시키니 당연히 中興의 時期에 屬하며 政治와 刑罰을 밝게 닦고 紀綱을 바로잡아 弊端을 버리니 祖宗의 옛 모습을 復舊하는데, 먼저 軍政을 힘쓰기를 振厲하되 여러가지로 하니 期年이 못되어 朝野가 淸寧하며 禁衛도 整肅하고 中外가 晏然하니 北狄(原文 缺 欠 朝鮮 金石 總覽 補)과 海冠(日本)들이 손님(賓)으로 服從하여 交信하기를 알을 다루었고 그 安泰는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思慮가 深遠하여 業을 이룸이 可謂 지금하였다. 大業을 樹立하는 者는 반드시 鐘鼎에 새기되 功德과 忠勳을 明錄하여 큰 아름다움을 後世에 남기나니 이 大鐘을 鑄成하고서 어찌 새겨두어 後世(原文은 也字)에 밝게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 臣 叔舟는 삼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銘하되 우리 祖國의 임금이 大東을 占有하고 聖스러운 王이 서로 이어졌으나 治國은 항상 不安함을 王이 警戒을 하였지만 大運이 없어나 나라를 바로잡지 못하니 權勢잡은 奸臣이 濁亂하여 國柄을 혼들어 毒스런 불꽃, 잔악한 불꽃은 兵革의 불씨가 일어나니 하늘이 도으신 우리 王에게 勇智를 주시어 神武를 뽑내 宗祐를 安定 할때 忠賢도 힘을 도우

니 저녁에 불나비가 촛불에 대드는듯 大難을 가라앉침이 하룻밤을 가지 못하야 中外가 편안하여 기뻐 노래한다. 이때 우리왕이 紀綱을 整頓하여 옛 법도로 돌아가니 不張한게 있지 않다. 편안함에 기대거나 위태로움을 잊지않고 思慮가 中興에 있다. 먼저 戎事에 힘쓰어서 여기에 大鐘을 鑄造하여 禁中에 걸어놓고 평평 종을 치니 軍陣의 列 지음이 整整堂堂 하도다. 장한 우리 鴻業은 威風이 휘날리어 넓고 멀리 뻗치니 山の 道적 섬의 오랑캐가 위엄에 놀리고 큰德에 얼굴을 붉히며 僻邑으로 琛珠를 받치고 臣下로 服從할 것에 關門을 두드렸다. 妖氣가 깨끗히 사라지고 四境에 근심이 없어져 백성은 生業에 樂을 두어 정돈과 만족이 있도다. 우리왕께서는 舜과 禹王같은데 비록 先烈을 이었다지만 實은 왕이 創建 할때에 忠勳들이 모여붙어 英武에 贊同하여 丕績을 이겨 세우니 우리 東土에 惠澤이 되었다. 이 巨鐘에 그 일들을 새기니 周나라 成王과 比肩하여 千億年 오래도록 알려 두니라.

洪惟我

主上殿下念昇平日久。軍政不可不嚴乃 命攸司鑄大鐘。置思政殿前廳。

以號令禁軍。而整齊之我朝自

太祖康獻大王創業開國。

太宗恭定大王光紹前烈。至于

世宗莊憲大王持盈守成。以文爲治。四境按堵。民不見兵者。三十餘年矣

文宗短祚 嗣王幼冲。權姦擅(擅)國。濁亂朝政。罔危 宗社我殿下 奮英

武率勵忠義。靖夷大難遂定大業。屬當中興之時。修明政刑。改紀祛弊。

悉復

祖宗之舊。而首以軍政爲務。提(提)撕振厲。無所不至不期年。而朝野清

寧。禁衛整肅。中外晏然。北狄海寇。實服納款。絡繹爭先。其所以安不

忘危。思深慮遠。以成中興之業者。可謂至矣。夫建大業者。必勤鐘鼎。

所以明功德。錄忠勳。垂鴻休示後世也。茲當大器之成。豈可不爲之銘。

以昭示於後世(也)耶。

臣叔舟謹拜稽首。銘曰於皇我

祖。奄有大東。聖聖相承。化理彌隆。治不常安。帝乃示警。大運中否。那用不靖。權(擯)姦濁亂。國柄是擅。毒燎虐焰。乃爨乃煽。天眷我王勇智是錫。曰奮神武。以定

宗祐。忠賢効力。宵蛾赴燭。迺靖大難。曾不終夕。中外寧謐(隘)。謳誦悅

懌。惟時我王。整頓紀綱。復我舊典。罔有不張。安不可憑。危不可恐。

思保中興。先務于戎。受鑄大鐘。懸之禁中。鼓之鏗鐻。獮豸振列。整整

堂堂。壯我鴻業。威風震赫。浩浩退涉。山戎島夷恒威服德執贊獻琛。扣

關(關)臣服。妖氣淨盡。四境無虞。民樂于生。魚魚于于。於皇我王。

舜禹爲徒。難承先烈。實創王圖。忠勳攀附。贊我英武。克建丕績。惠

我東土。勒茲巨鐘。郊鄙與偶。於千億載。永垂不朽 ( ) 內는 原文

字

有明天順元年三月

上記 鐘銘의 大意를 살펴보면 文宗의 在位가 짧고 嗣王인 端宗이 어려

權奸들이 國政을 濁亂하여 宗社가 危殆롭자 世祖가 一大英斷을 내려서

忠義로 大難을 바로잡아 中興王으로 政刑을 明修하였는데 먼저 軍政을

힘써서 一年도 못되어서 朝野와 宮內가 安靜되며 中外도 晏然하였다.

이와같이 深思遠慮로써 中興의 大業을 成就하였다. 大業을 세운 者는

鐘鼎에 그 事實을 새기되 功德이나 忠勳을 써서 後世에 남기는 것으로

이제 大鐘을 만들었으니 어찌 그 記錄을 後世에 남기지 아니하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世祖가 王位纂奪을 中興의 明君으로 稱讚한 記念物的

大鐘鑄造를 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第三) 朝鮮金石總覽의 光化門鐘銘에는 鑄鐘에 同願參與者 名單이 빠  
져있으나 海東金石苑에는 다음의 名單들이 있어서 參考로 적어본다.

( ) 內는 筆者注

讓寧大君禎(太宗第一男) 孝寧大君補(太宗第二男)

臨瀛大君瑒(世宗第四男) 水膺大君琰(世宗第八男)

海陽大君晄(未詳) 敬寧君祚(太宗第一男)

誠寧君祖(太宗第二男) 謹寧君禮(太宗第四男)

熙寧君祚(太宗第六男) 益寧君移(太宗第八男)

輸忠衛社同德佑翼功臣桂陽君璿(世宗第二男)

義昌君珪(世宗第三男) 密城君琛(世宗第五男)

輸忠衛社同德佑翼功臣翼峴君璉(世宗第七男)

寧海君瑋(世宗第九男)

靖難功臣

○輸忠衛社協贊靖難同德佑翼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領經筵藝文

春秋館書雲觀事 世子師河東府院君鄭麟趾

○宣授奉 議大夫光祿寺少卿行輸忠衛社協贊靖難同德佑翼功臣大臣輔國崇

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經筵事西原府院君贈諡襄蒞公韓確

○輸忠衛社協贊靖難同德佑翼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經筵事

監春秋事 世子傳甄城府院君贈諡文安公李思哲

○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綏祿大夫雲城府院君朴從愚。

○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崇祿大夫判中樞院事延山君贈諡襄孝公金孝誠

○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崇祿大夫判中樞院事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

館事兼判兵曹事成均大司成 世子二師韓城君李季甸

○輸忠協策靖難同德佑翼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寶文閣大提學知春秋館

事兼判兵曹事成均大司成高靈君申叔舟

○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正憲大夫議政府右叅贊集賢殿大提學密山君朴仲孫

○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正憲大夫吏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

秋館事吉昌君權擊

○追贈正憲大夫兵曹判書知經筵春秋館事全城君溢平簡公行推忠靖難佑翼功

臣通政大夫兵曹叅議李禮長

○輸忠協贊靖難功臣資憲大夫咸吉道都觀察黜陟使兼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

事提調刑獄兵馬公事咸興府尹安川君權尊

○輸忠衛社協策靖難佑翼功臣資憲大夫兵曹判書南陽君洪達孫

○輸忠協策靖難佑翼功臣資憲大夫禮曹判書修文殿提學仁山君洪允成

○輸忠協策靖難佑翼功臣嘉靖大夫咸吉道兵馬都節制使知招討營田事揚山君 楊汀

輸忠協贊靖難佑翼功臣嘉靖大夫判內侍府事田昉

○輸忠衛社協贊靖難佑翼功臣嘉善大夫前司憲府大司憲集賢殿提學同知春秋

館事 世子左副使客寧城君崔恒

○推忠靖難功臣嘉善大夫鶴林君李興商

○輸忠協策靖難功臣嘉善大夫慶尙道右道兵馬都節制使知招討營田事文城君

柳洙

○輸忠協贊靖難佑翼功臣嘉善大夫前藝文館提學坡城君尹士盼

○輸忠協策靖難功臣嘉善大夫中樞院副使江城君口石柱

○推忠靖難功臣嘉善大夫口知中樞院事信州君康袞

○追贈嘉善大夫兵曹叅判西原君溢襄悼公行推忠靖難功臣啓功郎與廐署丞韓

明縉

○輸忠協策靖難功臣通政大夫前僉知中樞院事柳河

○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佑翼功臣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經筵叅贊官兼尙瑞

尹判奏常寺口知吏曹內直司樽院事韓明澄

○推忠靖難功臣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 義

○推忠靖難功臣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權驪

○輸忠協策靖難功臣朝政大夫僉知中樞院事郭連城

○推忠靖難功臣折衝將軍義興侍衛司 軍柳

○推忠靖難通政大夫判繕工監事柳泗

○推忠靖難功臣 將軍 贊 軍 洪 純 老

○推忠靖難功臣果毅將軍行 司 大 護 軍 林 自 蒼

○推忠靖難功臣 義 將 軍 前 義 興 侍 衛 司 大 護 軍 將

○推忠靖難功臣中訓大夫行 世子左弼善左中護柳子晃

○推忠靖難功臣中訓大夫行司宰副正權擎

○推忠靖難功臣中訓大夫行司僕 薛繼祖

○推忠靖難功臣奉正大夫行典農少尹洪順孫

- 推忠靖難功臣奉列大夫漢城少尹宋益孫
- 推忠靖難功臣奉列大夫行司僕少尹韓□□
- 推忠靖難功臣□□將軍前右軍護軍崔潤
- 推忠靖難功臣宣署將□□右軍司直李□
- 佐翼功臣
- 輸忠勁節佐翼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經筵事監春秋館事□□傳蓬原府院君鄭昌孫
- 追贈輸忠勁節佐翼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 前左議政領集賢殿經筵事監春秋館事坡城府院君行正憲大夫議政府□□贊修文殿提學贈諡恭簡公尹炯
- 輸忠勁節佐翼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二師晉山府院君姜孟卿
- 輸忠衛社同德佑翼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院事兼判吏曹事鈴川府院君尹師路
- 輸忠勁節佑翼功臣光德大夫坡平君尹巖
- 推忠佐翼功臣□□大夫判中樞院事梁山君李澄右
- 推忠佐翼功臣光德大夫花川君權□
- 輸忠勁節佐翼功臣崇祿大夫議政府左贊兼判戶曹事韓山君贈諡恭□公李季

隣

- 推忠佐翼功臣正憲大夫議政府左贊兼判禮曹事南原□□守身
- 推忠佐翼功臣資憲大夫知中樞院事錦川君朴薑
- 推忠佐翼功臣資憲大夫戶曹判書集賢殿提學 世子右賓客筵城君朴元亨
- 推忠佐翼功臣嘉靖大夫兵曹參判修文殿提學綾城君具致寬
- 推忠佐翼功臣嘉善大夫同知中樞院事原城君元孝然
- 推忠佐翼功臣嘉善大夫刑曹參判□文閣提學商山君黃孝源
-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經筵參贊官修文殿直提學□□教直
-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經筵參贊官集賢殿直提學知製 教兼判軍器監事□刑曹事尹子雲
-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兵曹參議韓終係
-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經筵參贊官兼判軍資監事知戶曹事韓繼美
-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慶尙道觀察黜陟使兼監倉安集轉輸勸農管事提調刑獄兵馬公事曹孝門
-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承政院□□承旨經筵□贊官寶文閣直提學知製教兼判司僕寺事知兵曹事金確
-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禮曹參議李克培
-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吏曹參議兼春秋館編修官李免堪
-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鄭守忠
- 推忠佐翼功臣折衝將軍義興侍衛司上護軍兼知兵曹事確愷
- 輸忠勁節佐翼功臣通政大夫判宗簿寺事權攀
- 推忠佑翼功臣折衝將軍行義興侍衛司大護軍趙得原從功臣
- 崇祿大夫判敦寧府事礪良君宋口壽
- 崇政大夫判中樞院事修文殿大提學兼判戶曹事李仁孫
- 崇政大夫前判中樞院事趙惠
- 崇政大夫檢校議政府贊成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安止
- 崇政大夫檢校判中樞院事李樺
- 正憲大夫知敦寧府事李渲
- 奉憲大夫坡原尉尹
- 正憲大夫前行上護軍金聽
- 正憲大夫藝文館大提學□邊
- 正憲大夫忠清道水軍都安撫處置使金允壽
-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金何
- 正憲大夫開城府留守金世□
- 正憲大夫京畿都觀察黜陟使李承孫
- 正憲大夫中樞院使黃致身

- 正憲大夫中樞院使長川君李昇平
- 正憲大夫刑曹判書成奉祖
- 資憲大夫前知敦寧府事姜頌德
- 資憲大夫行上護軍谷山君延慶
- 資憲大夫前知中樞院事修文殿大提學柳陟
- 資憲大夫判漢城府事□處
- 資憲大夫全羅道兵馬都節制使河漢
- 資憲大夫前知中樞院事趙瑞安
- 資憲大夫前知中樞院事沈澮
- 資憲大夫前知中樞院事柳江
- 資憲大夫中樞院使長與君馬勝
- 資憲大夫知中樞院事李崇之
- 資憲大夫知中樞院事兼成均司成 世子左賓客金鈞
- 資憲大夫檢校判漢城府事李携
- 嘉靖大夫全州府尹□孝文
- 嘉靖大夫平安道都觀察黜陟使兼平壤府尹金連枝
- 嘉靖大夫判忠州牧使韓瑞龍
- 嘉靖大夫平安道兵馬都節制使李允孫
- 嘉靖大夫吏曹參判辛碩祖
- 嘉靖大夫漢城府尹李純之
- 嘉靖大夫藝文館提學兼成均司成金永
- 嘉靖大夫同知中樞院事金滉
- 嘉靖大夫慶尚道左道兵馬都節制使李好誠
- 嘉靖大夫司敦寧府事閔騫
- 嘉靖大夫德寧府尹同知春秋館事 世子左副賓客盧叔全
- 嘉靖大夫司憲府大司憲 世子左副賓客金滉
- 嘉靖大夫判內侍府事安璐
- 嘉靖大夫判內侍府事洪得啓
- 嘉靖大夫前仁壽府尹李審
- 嘉靖大夫前上護軍閔恭
- 嘉靖大夫前中樞院副使孟孝曾
- 嘉靖大夫前慶州府尹李鳴謙
- 嘉靖大夫前忠清道兵馬都節制使李宗陸
- 順義大夫責城殿沈安義
- 嘉善大夫前同知中樞院事李嶺
- 嘉善大夫中樞院副使李守義
- 嘉善大夫前行上護軍趙煥
- 嘉善大夫前行上護軍中自守
- 嘉善大夫工曹參判安崇孝
- 嘉善大夫前行上護軍趙嶠
- 嘉善大夫中樞院副使宋復元
- 嘉善大夫漢城府尹江寧君洪元用
- 嘉善大夫中樞院副使金漑
- 善善大夫仁順府尹權聰
- 嘉善大夫中樞院副使金辭
- 嘉善大夫中樞院副使李思明
- 嘉善大夫戶曹參判同知春秋館事魚孝瞻
- 嘉善大夫同知中樞院事沈泐
- 嘉善大夫判會寧都護府事康純
- 嘉善大夫江原道都觀察黜陟使兼兵馬都節制使金元粹
- 嘉善大夫同知中樞院事朴烟
- 嘉善大夫同知敦寧府事李孝智
- 嘉善大夫行上護軍李俊生
- 嘉善大夫全羅道都觀察黜陟使宋處寬
- 嘉善大夫中樞院副使浪伊口口
- 嘉善大夫判公州牧事東原君咸禹治

○嘉善大夫慶口口柳□

○嘉善大夫禮曹參判閔瑗

○嘉善大夫檢校漢城尹任孝忠

○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提學李孝禮

○嘉善大夫檢校漢城尹柳京□

○嘉善大夫檢校漢城尹閔序

○嘉善大夫檢校漢城尹辛均

○嘉善大夫檢校漢城尹韓希愈

○嘉善大夫檢校漢城尹張裕

○嘉善大夫檢校漢城尹權措

○嘉善大夫檢校漢城尹李迥

○嘉善大夫檢校中樞院副使集賢殿口提學康晉

○嘉善大夫行知內侍府事李得富

○嘉善大夫行同判內侍府事□□

○通政大夫前僉知中樞院事河潔

○通政大夫行上護軍河友明

○通政大夫前忠清道兵馬節節制使李宗孝

○通政大夫行上演軍朴居謙

○通政大夫前集賢殿副提學曹尙治

○通政大夫前僉知中樞院事任孝仁

○通政大夫行上護軍兼成均司成金新民

○通政大夫全羅道水軍安撫處置使李行檢

○通政大夫行穩城都護府使柳士技

○通政大夫江界都護府使具人信

○通政大夫忠清道兵馬節制使鄭種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趙秀文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馬興貴

○通政大夫行上護軍高得中

○通政大夫口安州牧使洪益生

○通政大夫戶曹參議金禮蒙

○通政大夫刑曹參議李□亨

○通政大夫前僉知敦寧府事尹士□

○通政大夫行吉州牧使金億之

○通政大夫慶尙道右道水軍安撫處置使李士平

○通政大夫黃海道觀察黜陟使兼兵馬節制使慎註

○通政大夫行上護軍李興德

○通政大夫前行上護軍李永肩

○通政大夫慶尙道左道水軍安撫處置使宣炯

○通政大夫行黃州牧使金吉通

○通政大夫行判司僕寺事韓昌

○通政大夫僉知敦寧府事姜希顏

○通政大夫行上護軍金循義

○通政大夫行瑞興都護府使安位

○通政大夫行上護軍童子古

○通政大夫行上護軍李埤

○通政大夫行羅州牧使金恕

○通政大夫忠清道觀察黜陟使李重

○通政大夫前行上護軍金有銑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金延孫

○通政大夫行上護軍宣錫年

○通政大夫前僉知中樞院事□□□

○通政大夫行上護軍裴尙□

○通政大夫行安東大都護府使金淡□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尹三山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金□溫

○通政大夫口曹參議尹垠

○通政大夫行慶源都護府使張進忠

○通政大夫檢校工曹參議希齊

○通政大夫檢校工曹參議柳宗禎

○通政大夫口口口口參議崔永

○通政大夫檢校工曹參議安從儉

○通政大夫檢校工曹參議集賢殿直提學元

○通政大夫檢校戶曹參議鄭浩然

○都提調 臨瀛大君瑈 義昌君珪

○提調 推忠佐翼功臣資憲大夫知中樞院事錦川 君朴薑 嘉善大夫中樞院副

使金漚

○副提調 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佑翼功臣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經筵參贊

官兼尙瑞尹判奉常寺事知史曹口口口口司樞院事韓明澮

○郎廳 朝散大夫行司膳署令金石梯 節將軍行中軍司正柳緩 朝奉大夫行

繕工判官朴貴孫 承訓郎行口口口口事朴安命

○圖書院別生 折衝將軍行忠武侍衛司大漢軍崔涇

○監後 內謁大夫行典事姜升 內謁大夫行管事李末

○書員 軍器監權知直長梁福山 口致中

○令史 金侃

○鑄成匠 張碩 金德生 金莫同 金火伊 朴佛大

○水鐵匠 車永守 韓薦 姜得和 梁生

○雕刻匠 劉養 梁春奉 許智 張今同

○入綵匠 金今音知 張吾个知 洪福重

○爐治匠 韓吾乙末 李萬

○木手 嚴信

○刻字 金長壽 洪金剛 金夫口 黃孝奉 尹貞 鑄鐘에 參與한名單에 그 官職을 보면 世祖가 端宗王位篡奪에 加擔하

었던 全員名單인 것을 推定하게 된다. 大君을 爲始해서 高級官員이 參  
加되었는데 官職名을 살펴보면

輸忠衛社同德佑翼功臣

○端難功臣에

輸忠衛社協贊靖難同德佐翼功臣

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

輸忠衛社協贊靖難佐翼功臣

輸忠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

推忠靖難佐翼功臣

輸忠協贊靖難功臣

輸忠衛社協策靖難佐翼功臣

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

輸忠協贊靖難佐翼功臣

推忠靖難功臣

輸忠協策靖難功臣

推忠靖難

佐翼功臣에

輸忠勁節佐翼功臣

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推忠佐翼功臣

原從功臣에

崇祿大夫

崇政大夫

正憲大夫

奉憲大夫

資憲大夫

嘉靖大夫

順義大夫  
嘉善大夫  
通政大夫

一  
三七  
四九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靖難功臣四〇人 佐翼功臣二六人 原從功臣二三七人인데 이 사람들은 世祖의 王位爭奪에 翼贊한 全人員인 것을 알게 된다.

한편 朝鮮王朝實錄을 보면 아래와 같은 記錄이 있다.

- (一) 世祖三年丁丑七月 丁丑擊新鐘聚入番軍士
- (二) 世祖五年乙卯四月 壬申上觀構鐘閣基于光化門外
- (三) 世祖七年辛巳二月 乙亥上御光化門相構鐘閣基
- (四) 世祖十年甲申九月 傳于書雲觀。曰大小行幸動駕時吹螺則撞鐘閣大鐘三七度還宮時大駕至巡廳隅則亦然。
- (五) 世祖十一年乙酉正月 己巳幸鑄鐘所。命撞新鐘其聲雄遠。上嘉之、即賜孝寧大君補鞍具馬一匹其除提調各馬一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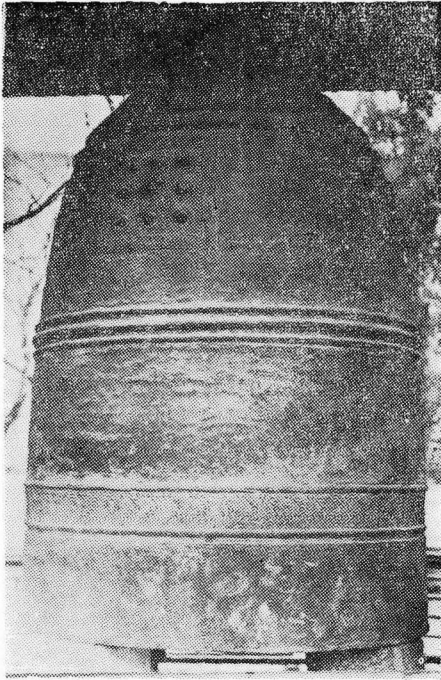


圖 2. 興天寺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一) 世祖三年에 新鐘을 쳐서 禁中入番軍士들을 聚合하였고 (二) 世祖五年에 와서야 비로소 光化門外에 鐘閣基地를 보았고 (三) 世祖七年에는 光化門에 世祖가 나와 鐘閣基地에 架構하는 工事を 둘러보았다. 하였으니 思政殿앞 行宮에서 光化門外로 移轉한 것은 世祖七年以後의 일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리고 (四) 世祖十年에는 書雲觀에 傳旨하기를 大小行幸 때 大駕가 動하면 吹螺를 하고 즉시 鐘閣大鐘을 三七度 치게 하며 還宮時에도 大駕가 巡廳 모퉁이에 이르면 亦是三七度 즉 二二번을 치게 하라는 것이다. 世祖十年의 記錄이 雲從街大鐘을 치라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雲從街와 光化門과는 距里上 大駕가 巡廳隅를 지날 때 擊鐘하라는 것을 보아서 雲從街의 大鐘보다도 光化門大鐘을 차게한 것이라고 史料되며 또한 鐘閣은 光化門鐘閣이 된 것으로 본다. (五) 世祖十一年正月에 王이 鑄鐘所에 가서 新鐘을 치게 하였다는 記事內容을 보면 孝寧大君補가 都提調格으로 推定되어 興天寺鐘과 關係가 있는 듯 하나 未詳하다 以上 A·B鐘은 大業을 成就한 內容事를 담은 鐘銘이며 비록 鐘體는 亡失되었으나 鐘銘이 남아 있어서 當時의 事情을 알리고 있다.

光化門鐘이 世祖二年에 鑄造되기 前에 太祖太宗 世宗에 걸쳐서 文臣으로 이른난 卞季良의 春亭文集에서도 光化門鐘銘并序의 鐘銘이 記錄하여 있다. 이 鐘銘을 보면 上之十二年에 鑄鐘하여 宮門에 다렷다 하였고 內容이 太祖大王의 勳德과 太祖가 積極 協力하여 大業에 翼贊한 王의 功을 즉 兩王의 創業한 功을 鐘鼎에 勒銘한다는 文意이다. 그렇고 보면 太宗을 말한 것이며 그렇고 보면 太宗十二年에는 光化門鐘이 이미 別個로 鑄造하여 功德을 기리고 群臣의 朝會時刻을 알리던 鐘인 것이 알게 된다. 아래에 原文을 적어 본다.

光化門鐘銘并序

卞季良

上之十二年冬十月初七日命攸司鑄鐘懸于宮門蓋遵古制以銘功德且以嚴群臣朝會之期也 洪惟 太祖康獻大王之在潛邸也勳德既隆人心日附讒構乃騰禍機不測我 殿下方慮 齊陵之側聞事急乃來應機以制遂與勳親倡義推戴以建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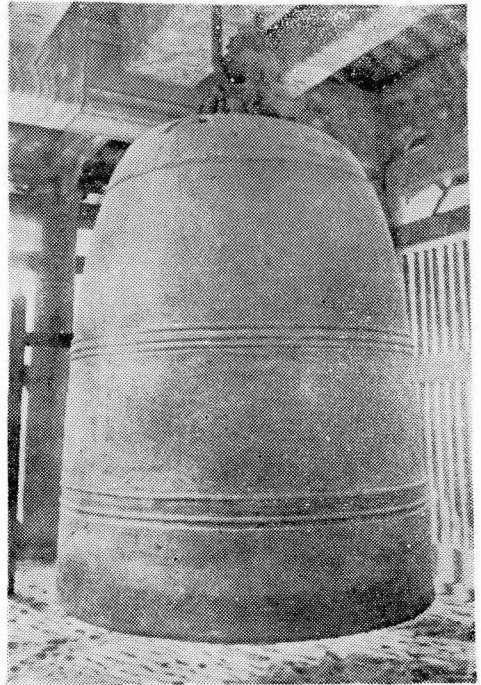


圖 3. 普信閣鐘

業厥後茲臣再有構亂者我 殿下隨即平定以安 宗社臣竊惟孝親敬長德莫盛焉 開國定社功莫大焉誠宜勒銘鐘鼎以示萬世 即位以來繼志守成敬天事大再受 帝命以光祖烈 聖學極於緝熙治效臻於隆盛以至慎終報本之誠愛民育物之仁 立經陳紀之宏規大畧實皆高出於百王之上矣今又特 命懸鐘以嚴晨夜之限其 所以自強不息克勤庶政以基萬世之太平者至矣而流澤至長歷年之久當與此鐘 同壽罔極也無疑也於乎盛哉且其聘謀効力與於勳盟者亦宜悉銘于後傳諸不朽 也臣季良謹拜手稽首爲銘銘曰

皇矣 聖祖、降于東土、受天景命、肇開洪祚、昔在麗季、政散民離、天 眷我德、人心有歸、惟時讒慝蠱惑其群、謀我孔棘、禍迫晨昏孝哉 聖子、 來自廬墳、神機一決、允也亭屯、如日之升、溥暢洪輝、尋有孽芽、抵隙齧 危、天厚 太祖、俾昌厥後、假手我王、踏彼群醜、衆賢協謀乃左乃右、彝 倫攸敘、宗社悠久、再建隆功、實惟我、后功崇不居、德盛不有、天鑑孔昭 式申保佑、帝命眷臻、時哉龍受、全寶煌煌、其大如斗、天寵之繁、曠古無 耦、我遷于都、克繩 祖武、虔虔孝誠、終始無違、之綱之紀度惟熙、有嚴 晨夜維鐘之懸、百司效職、曷敢或愆、綿綿 宗社、地久天長、 臣拜作銘、

用示無疆。

其他 世祖 때 鑄鐘한 鐘銘의 記錄이 넉개가 있으니 一四五九年(世祖四年) 己卯에 龍門寺鐘記와 一四六二年(世祖七年) 壬午에 有明朝鮮興天寺新鑄鐘銘이 있고 一四六四年(世祖九年) 甲申에 圓覺寺鐘銘(亡失)과 一四六八年(世祖一三年) 戊子에 現普信閣鐘記가 그것이다. 雲從街鐘이나 光化門鐘은 朝鮮王朝을 創業한 鴻功을 紀念하고 또는 中興의 大業을 紀念하는 鐘鼎으로 鑄鐘하였다면 四口의 大鐘은 佛利에 世祖가 親히 나서어 佛殿에 禮拜를 올리고 鴻業을 佛力에서 擁護를 받자는 誓願의 鑄鐘이라 하겠다.

### (C) 龍門寺鐘記

龍門寺에 銅鐘을 鑄造하여 施奉하였다는 龍門寺記를 보면 同寺는 昭憲王後(世宗王妃 沈氏)의 願利이다. 一四四六年(世宗二八年正統丙寅)에 昭憲王後가 首陽大君宮에서 昇避하였다. 大君(後日 世祖)에게 王后가 現夢하기를, 나를 爲해서 二佛八菩薩像을 만들어 龍門寺에 安置하라는 데서 當時 高僧 信眉와 學祖의 告言으로 釋迦如來 阿彌陀佛·文殊菩薩 普賢菩薩 觀世音菩薩 大勢至菩薩 金剛藏菩薩 除障礙菩薩 地藏菩薩 彌勒菩薩像等을 만들어서 景福宮清謙樓에 奉安하였다가 翌年七月에 龍門寺에 移安하고 龍門寺僧에게 寶殿을 改構하게 하며 本來의 所安佛像은 다 른 곳으로 옮겼다. 一四四八年(世宗三〇年) 戊辰四月初八日에는 法會를 設置하고 大君과 府夫人이 親히 가서 七日間 祈祝을 할적에 六日째 되 던 밤에는 卓상에 쟁그랑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香盒에 六枚舍利가 放光을 하였다 한다. 그후 一四五五年(端宗三年景泰六年) 乙亥潤六月에 大君이 寶位에 登極하자 다시 殿閣을 增修하였다는 것인데 一四五九年(天順己卯 世祖四年) 十一月에 와서는 銅鐘을 鑄造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면 龍門寺와 朝鮮李氏王家와는 一四四六年 昭憲大后의 願利에서 始作해서 一四五九年 梵鐘이 鑄造되기까지 一四四年間 寺院 增補修에 王家에서 注力하였던 것을 알겠으며 더욱이 龍門寺鐘記를 살펴보면 宮

闕内に 두었던 內院佛堂과 같은 役割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推定되는 것이다. 鐘記原文을 畧譯하면 다음과 같다.

龍門寺鐘記(佛敎通史參照)

天順己卯(一四五九年 世祖四年) 十一月에 내가(世祖) 中宮과 더불어 銅鐘을 鑄造하여 龍門寺에 施奉함은 위로는 祖宗의 考妣靈駕를 위함이며 中間으로는 懿敬世子를 아래로는 法界一切의 亡魂들의 苦를 없애기 爲함이다. 天命을 받아 文武에 뛰어난 朝鮮國王 李瑊(世祖)와 慈聖王妃尹氏 貞嬪韓氏 世子臣眺이고 出納에 臣李存 臣申雲承監鑄 臣金石梯 奉敎書 臣張重同이다.

龍門寺鐘記

天順己卯仲冬, 予與中宮、議鑄銅鐘事、施奉龍門寺、上爲祖宗考妣靈駕 中爲懿敬世子、下爲法界一切亡魂、爲息苦之願、伏惟

三寶訂知、弟子謹念

南無釋迦牟尼佛、南無阿彌陀佛、南無地藏菩薩、承天聰道烈文武朝鮮

國王李瑊

慈聖王妃尹氏

貞嬪韓氏

世子臣眺

通政大夫判內侍府事臣李存

通政大夫同判門侍府事臣申雲承奉爲出納

保義將軍行義與衛攝護軍兼軍器副正臣金石梯

監鑄

奉承大夫掖庭署司鑰臣張重同奉 敎書

以上이 龍門寺梵鐘記인데 이 鐘의 크기와 形態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小形의 梵鐘은 아닐 것이고 적어도 王家에서 願利에 걸렸던 것이라면 興天寺鐘에 比肩할게 아닐가 推定하고 싶다.

(D) 興天寺鐘(海東金石苑과 朝鮮金石總覽參照)

興天寺는 一三九七年(太祖五年)에 創建한 寺利로 서울市城北區 貞陵 洞東쪽에 位置하였던 것이라 한다. 廢寺가 된 後 거기에 걸려있던 梵鐘은 德壽宮博物館所藏이 되었다. 이 梵鐘은 一四六二年(世祖七年) 壬午에 鑄鐘한 것인데 鐘銘文을 畧述하면 다음과 같다(朝鮮金石總覽參照).

世祖七年辛巳夏五月壬子(二日)에 釋迦如來舍利를 檜岩寺에 分身하였던 바 祥光瑞氣가 하늘에 비치고 異香이 山谷에 가득 하였다. 孝寧 大君補가 舍利二五枚를 進上하자 上(世祖)이 慈聖王后와 더불어 內殿에서 禮拜하고 舍元殿에 分身安置하였다. 지난 丙辰(一四三六年) 世宗一八年에도 孝寧大君이 구하여 바치니 王妃가 內殿에서 禮拜하며 다음해 丁巳年(一四三七年)에는 上(世祖)이 親히 伽陀被의 管絃樂을 만들고 王妃와 같이 舍元殿에서 舍利를 供養하였다. 前後 分身舍利를 얻은 數量은 總一〇〇粒이었다. 이와같이 舍利를 얻자 上(世祖)이 대단히 기뻐 하여 大誓願을 내어 親히 楞嚴經을 翻譯하였고 宗親과 政府六曹와 臺省 諸將들을 引率하고 祖宗 및 一切의 舍靈을 爲하여 如來像一軀를 造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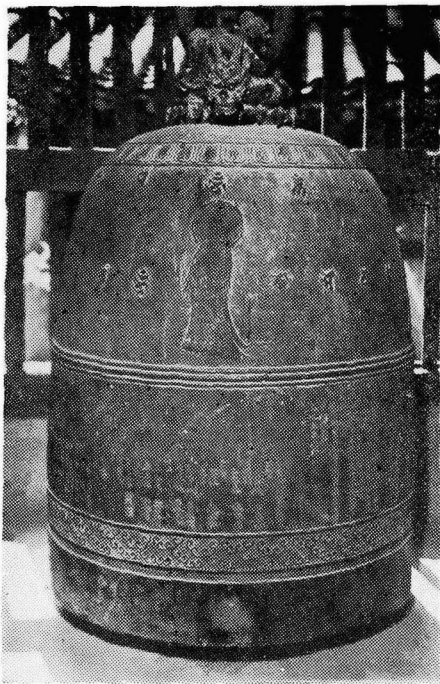


圖 4. 洛山寺鐘

며 中宮과世子를爲해서도 佛像一軀와 꿈에 觀音地藏 두 菩薩이 現夢함으로 二像을 만들고 各各 舍利를 佛像에 넣어 禪宗인 興天寺 舍利閣에 奉安, 上(世祖)이 王妃와 함께 寶殿에 나가 禮拜하고 香을 피워 供養하였으며 鴻鐘도 鑄造하게 하여 六時를 일깨워 幽滯를 引導케 하였던 緣起를 이에 彫刻하여 後世까지 無窮토록 昭示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면 興天寺는 王家의 誓願에서 佛像 舍利 鴻鐘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게 되며 더우기 韓繼禧가 奉教撰 鄭蘭宗이 奉教書한 것이고 梵鐘의 監鑄에는 都提調에 孝寧大君補 愾瀛大君 永膺大君琰이 되었고 提調에 推忠佐翼功臣(以下官職畧) 曹錫文以外에 金漑 金浞舜 柳子煥 金國光 洪應中雲 李存承 以上七人和 出納郎廳에는(以下官職畧) 金玉梯 禹核 金石山 趙嶠等 四人과 圖書院別生에(官職畧) 崔涇 監役에 金德生, 以上 官員이 直接參加한 것으로 보아서 興天寺는 王家에서 誓願한 國利이고 梵鐘亦是 世祖의 信心에서 鑄鐘된 것이므로 알 수 있다.

(E) 圓覺寺鐘(朝鮮金石總覽參照)

다음 圓覺寺는 塔골公園이 그 基地인데 一四六四年(世祖九年) 舊寺名 弘福寺(太祖時創建)址에 重創을 하고서 圓覺寺로 改稱하였으 며 이 圓覺寺도 一四八八年(成宗一九年)에 燒失하면서 梵鐘도 同時에 없어진 듯하다. 圓覺寺梵鐘(亡失)이 鑄造되기는 一四六四年 甲申에 圓覺寺가 重創되면서 精金五萬斤으로 大鐘을 鑄造한 事緣이 鐘銘記에 나타나 있는데 이 절도 世祖가 佛法으로 教化하며 大鐘으로 萬衆을 일깨운다는 崔恒의 撰文이다. 鐘銘의 大意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하늘은 雷聲으로 萬物을 놀라게 하고 佛은 鐘音으로 萬衆을 일깨운다 深奧한 이치는 알 方法이 없으나 大壯의 雷聲이 아니고는 모든 動物을 鼓舞하지 못하듯 참된敎 즉 佛敎는 無邊하다 그러나 大音의 鐘響이 아니고는 大夢을 어찌 깨닫게 하랴 天命을 이어받아 道를 體得하고 文에 烈하고 武에 英傑한 殿下(世祖)께서 부처님의 敎理인 慈悲로 若樂을 감 이하여 邦家の 福利를 빌기에 申申年(一四六四年)에 圓覺寺를 都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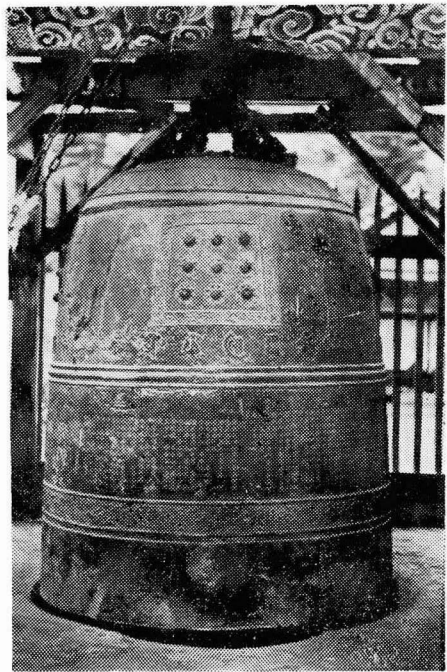


圖 5. 奉先寺鐘

세우고 五萬斤의 大鐘을 鑄造하여 雲雷閣에 걸게 된은 百靈이 交應을 하게 함이다. 우리 임금(世祖)의 마음은 즉 佛心으로 그 마음이 化하면 不鳴而鳴하고 마음이 化하지 않으면 鳴而不鳴하는 것처럼 鐘은 化로써 化를 울려서 鐘音으로 萬法이 한마음에 있게 된다고 하였다.

(F) 普信閣鐘(朝鮮金石總覽參照)

本鐘은 高三一八cm 口徑二二八cm 一四六八年(世祖十三年) 戊子에 鑄鐘한 것으로 敦義門(西大門)안 貞陵寺에 있던 것을 貞陵寺가 廢寺되자 圓覺寺에 圓覺寺가 廢寺되자 壬辰倭亂 후 普信閣자리로 옮겨 달게 되었다. 이 鐘閣은 高宗六年九月에 火災를 만나 다시 짓고 高宗三二年(一八九五年) 乙未에 普信閣이라는 懸板을 걸게 되면서 普信閣鐘이 된 것이다. 人定夕時)과 罷漏(朝時)의 時報를 하던 雲從街鐘을 代理해서 貞陵寺鐘이 懸鐘된 것은 朝鮮王朝의 崇儒排佛에서 온 事例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이 鐘銘을 보면 鑄鐘緣起文은 遺感스럽게 찾아볼 수 없고 監鑄에 都提調의 人名이 亦是 없음은 火災를 當할때 녹아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겠다. 다만 監鑄의 提調에서 (官職畧) 沈安義 金國光 韓繼美 尹子雲 金漑 □□□ 積躋 黃孝□ 元孝然 徐居正等 朝臣人名이 있었음을 보아 都提調에 있어서도 朝臣人名이 있었을 것으로 推定되며 따라서 王家에 依한 鑄鐘인 것을 可히 짐작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緣起銘文이 없 어졌다 하더라도 奇的으로 梵鐘體가 現在까지 殘存해 있는 것은 不幸中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以上 B에서 F까지 王國의 鐘은 世祖當時에 大鐘이 鑄造된 鐘銘을 中心으로 考察해 본 것이다. 光化門鐘과 같은 鐘은 世祖가 中興의 大業을 記念한 鐘이라 하면 餘他 鐘들은 世祖가 信心이 두터웠고 그래서 佛刹 鑄鐘에 留意한 梵鐘이라 하겠다. 世祖時代의 大鐘을 佛刹에서 鑄造하던 餘勢가 다음 睿宗元年(一四六九年 己丑)까지도 波及된듯 一四六九年(成化五年) 鑄鐘에 洛山寺鐘 奉先寺鐘 表訓寺鐘等 三口가 現存하고 있다. 表訓寺鐘을 除外한 洛山寺鐘과 奉先寺鐘의 形態를 살펴보면 同一한 手法으로 裝飾과 紋樣이 되어있고 規模 또한 大同小異하다. 다만 洛山寺鐘은 普信閣鐘과 같이 乳廓이 없으나 奉先寺鐘은 興天寺鐘과 같이 上部四方에 九乳廓이 있어 한 特異點을 보이고 있다. 無乳廓의 洛山寺鑄鐘匠은 普信閣鐘을 見本으로 하였고 奉先寺鑄鐘匠은 興天寺鐘을 踏襲한 것 같은 느낌을 풍기고 있다고 하겠다.

(G) 表訓寺鐘(朝鮮金石總覽參照)

現 表訓寺梵鐘 銘文을 보면 A·D 一四六九年(成化五年) 三月에 鑄鐘 되었다가 어느해 乙未年인지 未詳하나 이해가 없을 뿐 아니라 一六五六年(順治十三年 丙申 孝宗七年)에 山人 蕙慧 坦清僧侶가 千五百斤鐘을 만들었고 一七四二年(乾隆六年 英祖一八年)에 寺院이 燒失되는 데서 梵鐘은 없어졌으며 三次로 一七七五年(乾隆四〇年 乙未) 英祖五一年에 僧 普圓이 千三百斤의 鑄鐘이 되었다가 一七七七年(乾隆四二年 丁酉 正祖元年)에 漂流之災를 입었으므로 四次로 一七八二年(正祖六年) 壬寅四月에 比丘心抱의 周旋에서 千四百斤 鑄鐘이 된 것이다. 이 鐘이 現在까지 表

訓寺에 傳한 것인데 最初의 鐘銘은 全然 알 수 없고 다만 前代成化五年 三月日에 鑄造時 鐘銘을 쓴 鄭蘭宗과 鑄鐘時 監督官인 都提調 鑄鐘散差 官 銅鐵貿易에 從事한 名單이 겨우 傳하여 鐘銘에 남아 있음은 不幸中 多幸이다. 이 鑄鐘關係者를 보면 아래와 같다.

- 一、成化五年三月日
- 二、嘉靖大夫行虎賁衛大護軍臣鄭蘭宗奉教書
- 三、都提調 孝寧大君補 永順君臣溥 仁山君臣洪允成 吏曹判書臣韓繼禧 戶曹判書臣盧思慎 河陰君臣田昀 參贊臣尹弼商
- 四、鑄鐘散差官 李時兆 觀察使臣趙瑾 都事臣韓致元 高城郡守崔慶賢
- 五、銅鐵貿易 行司果臣張致福

(一) 成化五年은 處宗元年으로 世祖다음 王號인데 當時 鑄鐘部序를 보면 鑄鐘緣由文 다음에 鑄鐘年月이 記錄되는 事例에 비추어서 最初 鑄鐘本文은 全文이 없어진 것을 알겠다.

(二) 또한 鄭蘭宗이 奉教書하였다면 반드시 奉教撰者가 있어야 마땅한데 書者의 이름만이 있는 것은 鑄鐘本文이 없어질 때 同時에 撰者名이 없어졌고 다만 記憶에 의한 奉教書者만이 後에 鑄鐘 때 남긴 듯하다.

(三) 鑄鐘敬差官 銅鐵貿易 따위의 名稱은 現 表訓寺鑄鐘當時의 名稱 같고 韓致元은 睿宗때의 名稱과 人物이 아님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都提調에 孝寧大君補 永順君臣溥 仁山君洪允成 등의 人名은 世祖時代 鑄鐘에 나오는 人物名이며 同時에 王家의 祈願寺院에만 鑄鐘銘에 나온 前例에 비추어 表訓寺도 王家祈願利이 있을 알게 되는 것이다

(H) 洛山寺新鑄鐘銘(朝鮮金石總覽參照)

洛山寺는 世祖十二年에 同王이 金剛山을 갔다가 이절에 들러서 王妃와 世子(後日 睿宗)와 함께 當寺觀世音佛像에게 禮佛할 때 分身舍利가 五色빛을 發輝하니 世祖가 誓願하여 禪僧學悅에게 寺刹重創을 命하였고 睿宗은 資福寺로써 伽藍 百餘間과 佛具를 整備하였는데 梵鐘도 그 하나

라 하였고 그러한關係事緣를 鐘에 記錄했다는 鐘이다(鐘高一、五八m  
□□徑〇、九八m)

아래에 鐘銘文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洛山寺鐘銘(畧譯)

大上大王(世祖)十二年(一四六七年)王이 東으로 金剛山에 올라 曇  
無竭과 海에 禮하고 南으로 親히 이절에 들러서 王大妃 및 主上殿下(睿  
宗)와 더불어 觀世音大士相께 禮佛할때 舍利分身이 五色 찬란히 빛을  
내니 大上王이 크게 誓願을 내어 禪德學悅에게 重創을 命하고 우리 殿  
下에서 資福寺利로 삼고 大願을 追念하게 됨에서 더욱 힘입어 寺院이  
커지니 무릇 百餘間 壯嚴과 華麗함이 極에 達하고 모든 用器를 俱備하  
니 鐘도 그 하나이다. 大上大王의 聖德과 神功은 千古의 盛美가 卓越  
하고 主上殿下는 聖에서 聖을 이어받았으니 그 빛난 偉績을 鐘에 새기  
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後人에게 밝힌다.

以上 鐘銘을 보면 世祖의 誓願으로 睿宗이 父王을 爲한 資福寺로써  
王家에서 全적으로 注力을 기울였고 梵鐘도 王家에서 鑄鐘하였던 것을  
十分 認識하게 된다. 여기서 一言을 添加할 것은 鐘銘을 撰한 者와 書  
한 者가 모두 國家重臣들이었다면 鑄鐘年月 다음에는 監鑄한 官員名  
이 先例를 보아서 明確히 記名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脫落되어 있는  
것이다. 이 金石文을 收集할 당시 省畧했던 것일지 아니면 前例를 깨고  
本是鑄鐘關係者 記名이 없었던 것인지 未詳하다. 그러나 同時代에 鑄鐘  
한 奉先寺鐘의 鐘銘에는 여러 官員名이 있음을 봐서 鑄鐘關係者가 없지  
아니할 것으로 推定되는 것이다.

(I) 奉先寺鐘銘(朝鮮金石總覽參照)

鐘高二三八m 口徑一、六八m의 巨鐘이다.

奉先寺는 睿宗이 父王 世祖陵 가까이에 創建한 寺院으로 一種의 造泡  
寺에 該當한 寺院이라 하겠다. 世祖의 嗣王 睿宗이 父王의 功德을 贊揚  
하고 睿宗의 孝誠이 至極하다는 것을 後世에 기리기리 남기자는 뜻에서

이 鐘에 刻銘하였던 것인데 奉先寺鐘銘을 畧述하면 다음과 같다.  
奉先寺鐘銘(畧譯)

主上殿下 즉 睿宗은 孝誠이 至極하여 父王(世祖) 陵 가까이에 寺院  
을 經營하고 資福寺 名稱이 奉先寺이다. 洪鐘을 鑄造할제 銘을 쓰나니  
鐘이란 佛俱로는 으뭍가는 것으로 그 소리는 멀리 위로는 하늘까지 아  
래로는 六塗에 미치는 것. 世祖大王은 功德이 많았고 嗣王殿下의 孝誠  
은 至極하여서 그 빛이 萬古에 비치는데 不可不 鐘에 그 뜻을 실어 無  
窮한 곳에 미치게 한다.

以上이 世祖때 鑄鐘 五件과 다음王인 睿宗의 鑄鐘이 三件 合八件인데  
睿宗때에 만들어진 梵鐘도 實은 世祖의 鴻業을 盛讚한 것이라 보면 이  
兩代의 鑄鐘은 世祖의 中興偉業을 一般國民에게 알리고 또는 佛俱인 梵  
鐘으로써 佛信徒에 廣布하는 文意의 內容이라 하겠다.

### 三

朝鮮初葉의 鐘形은 特殊한 形態를 創案한 느낌을 준다 하겠으며 다  
른 한 편으로는 鑄鐘目的이 שו수한 在來鐘과 같이 音響을 먼곳에 까지  
雄大한 소리가 미치게 한다거나 또는 鐘表紋樣을 美的으로 處理한 鐘形  
美를 考慮하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感覺을 줄 수 있는 것과  
는 달리 다만 銘文과 音響에만 力點을 두었고 紋樣美에 對해서는 소홀  
하였다 하겠다. 그러나 鐘表의 鐘銘을 記錄한 順次가 어느 程度로 一  
定한 樣式을 갖춘 것은 하나의 特色이 아닐 수 없다.

圓覺寺鐘(亡失) 表訓寺鐘(再鑄) 洛山寺鐘 등에서만 볼 수 있는 鐘銘文  
만을 처음부터 陽刻하였던 것인지 또는 中途에 火災로 因하여 監鑄 또  
는 技術職과 人名이 消滅된 것일지 未詳하다. 光化門鐘이나 興天寺鐘  
乃至 奉先寺鐘 처럼 鑄鐘時에 監鑄役을 맡은 都提調 提調 副提調 등의  
人名 其他 技術者 名單을 明記한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朝鮮初葉에  
鑄鐘한 鐘表 鐘銘에 記載된 部序들을 各鐘을 通하여 表를 만들어 보면  
別表와 같다.

別表 鐘表에 나타난 部序名斗人員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乳廓	刻字	木手	爐冶匠	入絲匠	雕刻匠	水鐵匠	鑄成匠	鑄成匠	令史	書員	監後	圖書院別生	郎廳	副提調	提調	都提調	監鑄	本	朝鮮國新鑄鐘銘并序
	五人	一人	二人	三人	四人	四人	五人	五人	二人	二人	一人	四人	一人	二人	二人	監鑄	三	申叔舟撰姜希顏書	
乳廓	使令	刻字	木手	爐冶匠	注匠	雕刻匠	水鐵匠	鑄成匠	衛前		監後	圖書院別生	出納郎廳	副提調	提調	都提調	監鑄	本	興天寺新鑄鐘銘并序
	四人	八人	三人	一人	四人	四人	五人	六人	二人	一人	一人	三人	二人	四人	三人	監鑄	午	韓繼禧撰鄭蘭宗書	
無乳廓																		本	圓覺寺鐘銘并序
																		文	崔恒撰( )書
無乳廓	使令			工匠					衛前				郎廳	提調	都提調(人名無)				普信閣鐘
	六人			八人				八人				五人	九人						(世祖)三年
無乳廓																			洛山寺新鑄鐘銘并序
																			金守溫撰鄭蘭宗書
乳廓	使令	刻字	木手	爐冶匠	注匠	雕刻匠	水鐵匠	鑄成匠		書員	鑄成								奉先寺鐘銘并序
	一人	四人	二人	三人	一人	二人	二人	四人		二人	一人								姜希孟撰鄭蘭宗書
乳廓																			表訓寺鐘
																			鄭蘭宗撰( )書

- ① 一種의 鐘名에 ○○寺新鑄鐘銘并序가 支配的이다.
- ② 序頭에 臣某奉教撰 臣某奉教書한 人名이 있다.
- ③ 鑄鐘目的을 文章으로 序와 銘이 있다.
- ④ 鑄鐘한 年月이 반드시 明記되었다.
- ⑤ 光化門鐘에만 王族重臣의 名單이 添加하여 있다.
- ⑥ 監鑄에 있어서 都提調 提調 副提調等 臨時職 名下에 人名이 있다.
- ⑦ 郎廳 又是 出納郎廳의 名稱이 있는데 이 職名의 使命은 物品出納을 管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⑧ ⑨는 鑄鐘에 直接干與한 技術者 乃至 用役者 名單이 記錄되어 異彩를 띠고 있다.

(前扶餘博物館長)